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연구하는 대학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홍보팀

무등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63만 평의 캠퍼스를 자랑하는 조선대학교는 1946년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재를 우리 손으로 양성한다는 확고한 민족적 자각 속에 7만 2천여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그 동안 16만 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지역인재의 산실로, 현재 14개 단과대학 총 70개 학과와 7개 대학원에 3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명실상부 호남 최대의 명문 사학이다.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를 품에 안고 미래로, 미래를 품에 안고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실용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국가와 지역사회·문화를 선도할 연구성과 창출, 21세기 지역유망산업 학교분야에서의 최고수준 달성 등에 초점을 맞춰 대학 역량을 한데 모으고 있다.

전 구성원이 하나되어 대학발전을 이루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국책사업 유치와 연구력 향상, 우수한 대외 평가 등 젊음과 지성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상아탑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 전문성으로 승부한다 - 특성화 교육

2000년 이후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 분야별 역량을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특정분야에 집중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발전을 위해 집중육성하고 있는 특성화 분야는 생명공학, 산업디자인, 광기술, 정보통신, 국제협력의 5가지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달성하여 대학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 생명공학

'단백질소재연구센터'가 2000년 9월 과학기술부 국가우수공학연구센터(ERC)로 지정되어 향후 9년간 약 10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어 생물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가지정연구실(NRL)인 골대사조절실은 골다공증 치료에 새로운 타겟을 제시하는 등 '생명공학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단백질소재연구센터'는 그 동안 골다공증 억제 유전자 발견, 산소라디칼과 유전자 복구 활성 관계 규명, 중앙괴사 인자와 파골세포



김주훈 총장과 조선대학교 캠퍼스 전경 ▲

포 생존의 관계 규명, 새로운 단백질 분해 효소 CodWX의 역할 규명, 신규 고효성 항균 펩타이드의 개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얻은 것을 비롯해 국제 학술지(SCI) 102편, 국내 학술지 30편 등 총 132편의 연구논문과 국제학술회의 64건, 국내학술회의 183편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특허출원 22건, 국제 특허출원 2건 등 괄목할 만한 업적을 달성하였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우수 연구센터 3년차 22개 및 6년차 7개 센터를 대상으로 한 중간평가 결과 생명공학 분야에선 유일한 A등급을 받아 차기 2단계 3년간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확대 지원받게 되어 단백질 펩타이드 연구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방 사립대학으로는 최초로 싸이클로 트론 연구소를 유치하였으며, 내성세포연구센

터가 과학기술부 기초의과학연구센터로 지정 받아 첨단의료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2. 국제협력

조선대학교의 국제협력 특성화는 2002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그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조선대학교의 국제화 교육은 NICE-PERSON으로 집약된다. NICE란 New International Chosun Education 즉,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준비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선대학교의 새로운 교육체계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 열정(Passion), 윤리(Ethics), 책임감(Responsibility), 봉사정신(Service), 기회 활용 능력(Opportunity), 정보화 능력(Network)을 갖춘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8개국 72

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한 학술·학생교류를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해외캠퍼스를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지 학습과 다양한 문화체험 등 국제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봉사, 해외인턴십, 해외체험연구, 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학교가 인증해주는 'NICE(New International Chosun Education) 인증'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 해외캠퍼스는 NICE 프로젝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뉴질랜드 국립 빅토리아 대학 내에 조선대학교 해외캠퍼스를 설치하여 매 학기 50명의 학생들이 휴학하는 불편없이 현지에서 국제적 자질과 영어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3. 정보통신

2000년 전자·정보공과대학을 설립하여 관련학과를 집약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 명문대

학으로의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환경의 급속한 확산에 맞춰 기존의 컴퓨터공학, 전자정보공학 외에 인터넷소프트웨어공학부를 신설하고 기술과 창의성, 공학과 예술이 조화된 차세대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4. 산업디자인

호남 제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술대학은 1997년 4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분야로 결정되어 산업디자인 분야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있다. 전통문화 산업화를 통한 '국적있는 디자인'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일기획 대학생 광고대상, 진로디자인공모 대상, 장애인포스터공모전 대상 등 전국 규모 공모전에서 잇달아 괄목할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 디자인 교육의 A to Z, 디자인 전 분야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대학원을 2002학년도에 호남지역 최초로 설립하였다.



▲ 국제화마인드를 키우는 조선대학교 뉴질랜드 해외캠퍼스

5. 광기술

광주시가 지역특색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산업 육성계획과 관련하여 레이저 응용분야 등 그간 쌓아온 자체경쟁력을 토대로 광산업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01년 과학기술부 지역협력연구센터(RRC)로 지정된 '레이저응용신기술개발연구센터'와 산업자원부 지정 '광특화연구센터'에 이어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가 들어서 산·학·연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2004년에는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한 3000평 규모의 그린 빌리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 연구력·대외평가에서 공인된 'A학점'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이 교수의 연구력에 의해 좌우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지방사립대학이라는 어려운 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여 먼저 교수 개인의 연구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연구실적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기 위해 선택과 집중방식을 도입하여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초, 최고 수준의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외연구비와 국책과제의 유치는 대학의 연구력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며 그 성과 자체가 연구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조선대학교는 연구비 유치 실적이 2000학년도 140억(전국 193개 대학 중 17위)에서 2001학년도에는 227억으로 약 62% 증가해 전국 대학 가운데 12위를 기록하여 연구역량

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공인받았다.

또한 2002년도 학문분야별 대학종합평가에서 교직과정 우수대학, 수학 및 토목공학, 사회복지분야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교육 환경과 연구지원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BK21 지역대학육성사업 전국 최우수대학 선정, 국제화부문 교육개혁우수대학 선정, 사범대학 교육과정 및 수업영역 최우수대학 선정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성을 공인받고 있다.

■ 수요자 중심의 학사제도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조선대학교 학사제도의 특징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2004년 1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은 학부 6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7학기부터 대학원에 개설된 각 학과 기본교과목을 이수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석사과정 현행 4학기에서 1학기를 단축하여 3학기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보다 넓은 진로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연계하여 수업 연한 단축을 통한 교육비 절감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발맞춰 도입된 '전일제수업'은 1교시부터 14교시까지 본인이 편리한 시간대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간활용 및 자기 계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외국어대학에서는 3년은 우리 대학에서, 1년은 해외 자매대학에서 공부하는 '3+1제



산학협력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조선대학교 첨단부품사업단 ▲

도'에 이어 '2+2 제도' 등 다양한 해외유학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2 제도'는 2년 동안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2년은 해외 자매 대학에서 수학하여 2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현장위주 실용교육을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현장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학연계 전공프로그램(IRP 21)'을 진행하고 취업스쿨 개설, 우수학생에 대한 백악장 수여 등 학생들의 교육 및 취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최첨단 교육환경 조성

최근 조선대학교 캠퍼스는 교육공간 뿐만 아니라 도심의 주민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유니버시티 파크 사업을 통해 캠퍼스 권역별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동문헌수기금 모금을 통해 식목과 소

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또 첨단교육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노후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단행하고 현대식 태양열 기숙사와 멀티미디어정보센터와 장애인정보 지원실을 갖춘 중앙도서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면학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설 외에도 교수와 학생지원을 위한 행정 서비스체계 손질에도 힘써 조선대 행정시스템은 교육 및 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2000년판 'ISO 9001'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첨단교육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 및 연구시스템을 갖춘 조선대학교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연구하는 대학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